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2013년도 당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당회원은 입교인 전원입니다.

2013년 속회를 정리하는 연합속회가 13일(금) 오전 11시 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성탄절에 세례(유아세례)와 입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고 사전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은 14일(토) 오후 3시, 입교교육은 21일 오후 3시입니다.

2014년 교우전화부를 만듭니다. 번호가 바뀐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와 묵상집 [헤른후트 기도서]를 신청받습니다. 가격은 권당 5,000원입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등록한 새교우를 위한 환영회가 다음 주일 11시 예배 후에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이를 주께 삼아 그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이야기를 삼가십시오.

사 2:1~5 / 시 122
롬 13:11~14 / 마 24:36~44

계22:12-17

식 당 봉 사 : 안정숙 진정숙 이해령 이용숙 최희영 신연화 유영남 김정민 다음 주 식당봉사 : 박홍재 차혜심 허명선 정연희 한상경 오정은 정선희 이광욱 오늘설거지봉사 : 4여선교회 다음 주 설거지 : 6여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몽골사막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늘 따스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실수와 허물, 아집과 교만함이 많은 우리지만 이해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마음이 든든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의 품안에서 우리의 품도 하루하루 커져가게 하시고 날마다 더 많은 이를 따스하게 품어주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청파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청파교회가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조직의 유지와 발전에 신경 쓰기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기꺼운 마음으로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김문주 김영순 김윤정 김정민 이해령 김종문 김종철 고영애 문금석
민병배 문현미 박범희 박미영 박상규 박시내 박준희 이기분 배근수
김금순 배재경 이수정 백묘현 서정순 송임희 안정숙 안종일 정현주
양상철 박재란 양재성 오자영 왕수명 윤영미 이경남 이계선 이소순
이근식 신영신 이동천 이민범 공재량 이성범 권현숙 이인웅 오송경
이재문 이정은 이종배 고정림 이증자 김창경 이한림 김명희 이현순
장근성 박희순 장재영 김재영 정두리 정연희 정우선 정현모 조병주
조순덕 주경진 이윤정 최다미 최재욱 이수정 최철수 곽권희 한규숙
허호범 박성실 홍복선 홍춘숙 황현성 이오복 LK 무명

감사헌금

김근종 정옥영 김진중 노 용 정우선 문복순 박유경 이광석 이경희
이광재 이범석 류정욱 이인태 정선희 무명5

생일감사헌금

장재영

녹색꿈헌금

강세기 이소애 김흥기 박호규 강영님 7여선교회 무명3

	장혜숙 노순옥 김재흥 장영숙 정경례 박홍재 권미숙 이순정 이형숙 안홍숙 정영선 박혜경 김재흥 이범석 신진식 장영숙	백혜숙 박성희 최경미 신영신 진정숙 곽권희 박미영 김금순 윤수진 오현정 서정순 조항미 오자영 이근식 곽상준 김세진	장혜숙 노순옥 정복순 박정숙 조병주 백묘현 허정운 강순배 윤미경 김명희 홍춘숙 임창선	연합속회
--	--	--	--	------

인간성에 대한 반성문 2

권정생

도모코는 아홉 살
 나는 여덟 살
 이 학년인 도모코가
 일 학년인 나한테
 숙제를 해 달라고 자주 찾아왔다

어느 날, 윗집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도모코는 나중에 정생이한테
 시집가면 되겠네
 했다

앞집 옆집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두 쳐다보는 데서
 도모코가 말했다
 정생이는 얼굴이 못생겨 싫어요!

오십 년이 지난 지금도
 도모코 생각만 나면
 이가 갈린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모든 인간은 존엄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가 존엄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나와 입장과 생각이 다른 이를 만나면 그를 쉽게 정죄하고 웃음꺼리로 만들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의 가치, 존엄성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당회	옴기 / 김기석 목사 기도 : 박병구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신진식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방문성 장로	박숙영 선생 추현영 집사

12	영접위원	방문성 김정은 김현동 오유경 이해령 박시내
	헌금위원	김인걸 강순배

믿음으로 읽는 글

복음의 기쁨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6일 첫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을 발표하면서, 교회개혁 의지를 밝히고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강력히 비판했다.

5개장, 288항으로 구성된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교회가 지금보다 더 선교적이 되고, 좀 더 자비로우며, 변화 앞에 담대해져야 한다는 자신의 비전을 드러내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와 같이 교황으로서 자신의 ‘꿈’을 먼저 전했다.

교황은 “나는 선교적 선택, 즉 선교적 열정을 꿈꾸고 있다”면서 “교회가 자신의 존속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자신의 모든 관습과, 관행과, 스케줄과, 용어들과 구조 등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를 꿈꾼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히 교회가 “가난한 이들과 평화를 위해 특별한 열정을 지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황은 “문 밖에서 백성들이 굶주릴 때, 예수께선 끊임없이 ‘어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라’고 가르치셨다”면서 “안온한 성전 안에만 머무는 고립된 교회가 아니라 거리로 뛰쳐나가 멩들고 상처받고 더러워진 교회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교회개혁으로 인해 “길을 잃을까 봐” 걱정하는 것보다 “잘못된 안정감을 주는 구조 안에, 냉혹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규율 안에, 편안한 느낌을 주는 습관 안에 우리를 가두어 두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내셔널 가톨릭 리포터>의 존 알렌은 “이번 문헌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 특유의 친숙하고 소박한 언어가 빛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교황은 그리스도인의 자질을 이야기하면서 명랑한 어조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절대로 장례식에서 방금 돌아온 사람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교황은 먼저 “교황직 수행에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황은 최근 몇 년 동안 교황권의 집중 현상이 거의 완화되지 않았다고 솔직히 밝히며, 이제 교황의 권한을 나누어 가지는 “건전한 분권화”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말했다. 또한 지역교회의 주교회회의에 “참된 교의적 권한을 포함하여 법리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지역교회의 주교회회의는 이러한 권한을 지니지 못했으며, 199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결정했던 것처럼 이러한 권한은 교황 및 교황에게 협력하는 개별

주교들만이 지니고 있었다.

한편 교황은 성체가 “완전한 자들을 위해 내리시는 상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위해 주시는 강력한 치료제요 영양제”라면서 “성사를 향해 나아가는 문은 어떤 경우에도 닫혀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교황의 이 말은 이혼하거나 재혼한 신자들뿐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 가운데 일부를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이나 일반인들에 대한 성체성사 거부를 재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교황은 “진짜 마녀사냥을 갈망하는 이들의 세력이 아직도 교회 안에 존재한다”면서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과연 누구를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반문했다. 또한 복음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 시대의 요구를 무시한 채 전례와 교리에만 “과시적으로 집착하는 것”을 경계했다.

...<복음의 기쁨>은 사회문제와 관련해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고, 평화를 촉진하는 것이야말로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한 구성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교황은 배제와 불평등의 사회를 비판하며 “오늘날은 경쟁과 적자생존의 법칙에 지배되고 있으며,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은 “더 이상 사회의 밑바닥이나 변방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도 아니며, 버려진 잉여가 되었다”고 고발했다.

“살인하지 마라”는 십계명이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분명한 규범이었듯이, 우리는 배제와 불평등의 경제에 대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 이런 경제는 사람을 죽인다. 늙고 집 없는 사람이 노숙하다가 죽었다는 것은 뉴스가 되지 않지만, 주가지수가 2포인트 떨어졌다는 것은 뉴스가 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교황은 자유시장체제로 경제가 성장하면 세상에 더 큰 정의와 통합을 가져온다는 ‘낙수이론’을 비판하며, “이 가설은 확인된 적이 없으며, 다만 경제적 지배권력의 선의와 지배적인 경제체제의 신성화 작업에 대한 순진한 믿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금융자본주의를 “새로운 우상”이라고 지목하며, 국가도 통제할 수 없는 경제 권력을 “눈에 보이지 않은 채, 가상의 존재로 군림하는 경제적 폭정”이라고 지적했다.

교황은 돈과 권력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태도 뒤에는 “하느님에 대한 거부”가 도사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유시장이 절대화되면 “시장이 통제할 수 없는 하느님은 심지어 위험한 존재로 여겨진다”면서 “하느님은 모든 형태의 노예상태에서 해방되길 원하신다”고 말했다.

-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 중에서